佛殿背面 窓戶形式의 時代別 特性 및 變遷에 관한 硏究

郭 東 曄
(大眞大學校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金 一 鎭
(嶺南大學校 건축공학과 교수)

1. 서 론

이 논문은 우리나라 傳統寺刹을 대상으로, 불전창호형식의 각 시대별 특성과 변천경향을 밝히고자 시도한 연구의 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불교사원은 건립이후 국가의 對佛敎施策과 불교에 대한 사회적인식 등의 변화에 따라 사회 및 국민에 대한 종교적 역할이 점차 바뀌게 되었다. 이에따라 寺刹內 가장 중심적인 건물인 佛殿에서 행해지던 儀禮와 儀式 등이 점차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불전기능의 변화는 불전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요소중의 하나인 창호의 형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러한 불전창호형식의 변천은 내부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종교적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불전의 각 위치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불전정면의 창호는 고대로부터 시기가 흘러옴에 따라 점차 개방성을 지향하면서 개폐의 방법도 보다 사용하기 쉽게 바뀌어 나감을 선행연구[1]를 통해 알 수 있었음에 반해, 배면의 창호는 정면과는 변천의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배면창호는 정면에 비해서 意匠的이고 造形的이어야 할 필요성이 비교적 적고, 출입기능도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불전기능의 변화에 맞추어 형식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변천의 주기가 그리 빠르지도 않으며, 불전의 배면이 담당하던 기능이 점차 쇠퇴됨에 따라 오히려 폐쇄적으로 바뀌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면과는 변천양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배면창호는 나름대로의 규칙적인 체계를 가지고 변천되어 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의 시대별 특성과 변천체계가 질서있게 정리된다면, 사찰불전의 건립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잣대가 설정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배면창호의 변천과정연구를 旣 연구된 정면의 체계적인 결과와 복합적으로 적용한다면 불전창호의 형식별 변천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건축물 건립연대 추정의 지표가 될 편년의 작성

1) 郭東曄, 金一鎭, 韓國 寺刹 佛殿의 正面 창호형식 變遷에 관한 硏究, 건축역사연구 제 11호, 1997.

에도 보다 정확성을 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대상 건축물을 굳이 사찰의 불전으로 삼은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 현존 전통건축물중 사찰의 遺構가 가장 오래된 것에서부터 조선시대후기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수가 남아있어 시대적인 건축구조 경향을 잘 살필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불전 내부기능의 변화에 따라 창호도 변화를 보이고 있어, 창호형식의 변천과정을 체계화하는데 좋은 사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건물은 선행연구에서 밝힌바 있는 100개소의 불전중 正面이 單間인 관룡사 약사전, 신륵사 조사당, 북지장사 대웅전과 塔양식의 건물인 법주사 팔상전 등 4개 건물을 제외한 96개의 불전들이다. 이들중에는 배면이 완전히 벽체로 폐쇄된 사찰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배면에 창호가 설치되어 있는 불전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연구에 포함시켜 분석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불전배면이 폐쇄성을 띄우게 되는 程度와 창호를 설치하지 않고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건축적요인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조사분석방법은 個別窓戶의 형태나 특성 및 개폐방법 등을 분석하기보다는 배면 전체柱間의 창호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여 선행연구인 정면창호 변천의 연구와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2. 배면창호형식의 분류기준 설정

조사된 사찰의 불전은 내부로의 출입과 앞마당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 정면에는 대부분 全間을 개방할 수 있는 창호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보다 쉽게 여닫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배면에는 어간과 협·퇴간에 門과 窓, 門과 門, 窓과 窓 등을 조합하여 개구부를 낸 불전이 있는가 하면, 벽체로 일부 柱間을 폐쇄하거나 全間을 폐쇄하는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불전배면의 창호를 분류하기 위해서 背面柱間의 開閉程度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어간을 기준으로하여 門과 窓 그리고 壁으로 구성된 형식을 각 각 어간 門 형식, 어간 窓 형식, 어간 壁 형식 등으로 분류하였고, 다시 협간과 퇴간의 창호형식별로 세분화 하였다.

따라서 첫째로 어간 門 형식은 어간 門 + (협)퇴간 窓, 어간 門 + (협)퇴간 門, 어간 門 + (협)퇴간 壁 형식 등 3가지로 분류하였고, 둘째로 어간 窓 형식은 어간 窓 + (협)퇴간 窓, 어간 窓 + (협)퇴간 壁 형식 등 2가지[2]로 구분 하였으며, 셋째로 어간 壁 형식은 어간 壁 + (협)퇴간 門, 어간 壁 + (협)퇴간 窓, 어간 壁 + (협)퇴간 壁 형식으로 나누어 전체를 총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3. 배면창호형식의 分類 考察

3-1. 어간 門 형식

(1) 어간 門 + (협)퇴간 窓 형식

배면의 어간에는 불전으로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문을 설치하였고, 협간이나 퇴간에는 창을 둔 형식이다. 조사대상 사찰중 이 형식은 부석사 무량수전을 포함하여 총 20개소인데, 이 중 6개소의 불전은 협간이나 퇴간의 한쪽에만 창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벽으로 폐쇄한 경우이다.

이들 中 부석사 무량수전(13C)은 배면의 어간에만 신방목이 달린 古式의 문틀을 세워 兩開널문을 설치하였으며, 兩협간에는 살창을 달았다. 이러한 무량수전의 창호형식은 불전건립당시의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래는 정면의 창호도 이러한 형식이었다는 주장이 많다.[3]

이미 拙稿[4]에서 밝힌바대로 여닫이 널문과 살창을 조합한 창호는 古代로부터 계속 사용

2) 어간 창 + (협)퇴간 문 형식은 조사된 사찰중 한곳도 찾아볼 수 없었다.

표-1 어간 門 + (협)퇴간 窓 형식 사찰 일람표

	寺刹名	건립연대	건물규모	어간 門 형태	협·퇴간 窓 형태	비고
1	부석사 무량수전	13C	5 * 3	兩開 널문	살창	
2	정수사 법당(復元後)	1423	3 * 4	兩開 井字살문	널 棧雙窓	
3	무위사 극락전	1430	3 * 3	외여닫이 널문	널 棧雙窓	
4	봉정사 대웅전	1601	3 * 3	兩開 널문	널 棧雙窓	
5	화암사 극락전(復元後)	1605	3 * 3	외여닫이문	널 棧雙窓	
6	갑사 대웅전	1604	5 * 3	兩開 널문	널 棧雙窓(右퇴간)	左퇴간은 벽체
7	대곡사 대웅전(復元後)	1605	3 * 2	외여닫이 띠살문	널 棧雙窓(右퇴간)	左퇴간은 벽체
8	전등사 대웅전	1621	3 * 3	兩開 교살문	널 棧雙窓(右퇴간)	左퇴간은 벽체
9	위봉사 보광명전	17C	3 * 3	兩開 널문	널 棧雙窓	
10	하동 쌍계사 대웅전	1641	5 * 3	兩開 띠살문	띠살 棧雙窓	
11	법주사 대웅전	1624	7 * 4	兩開 교살문	井字살 棧雙窓	
12	운문사 대웅보전	·1653	3 * 3	兩開 꽃살문	꽃살 棧雙窓	
13	환성사 대웅전	1635	5 * 4	외여닫이井字살문	널 棧雙窓(左퇴간)	右퇴간은 兩開교살문
14	각연사 비로전(復元後)	17C초	3 * 3	외여닫이문	널 棧雙窓	
15	파계사 원통전(復元後)	1605	3 * 3	외여닫이 띠살문	棧雙窓	
16	대둔사 대웅전	1606	3 * 3	외여닫이 띠살문	널쌍창(右퇴간)	左퇴간은 벽체
17	화엄사 대웅전	1649	3 * 3	兩開 띠살문	兩開 띠살창	
18	기림사 대적광전	1629	5 * 3	兩開 널문	兩開 널창	
19	적천사 대웅전	1664	3 * 3	외여닫이 띠살문	외여닫이 띠살창	
20	보경사 대웅전	1743	3 * 2	외여닫이 띠살문	양개 널창(右퇴간)	左퇴간은 벽체

되어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現存하는 불전중에는 봉정사 극락전을 비롯하여 몇 몇 사찰의 正面間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 배면에 이 형식의 창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부석사 무량수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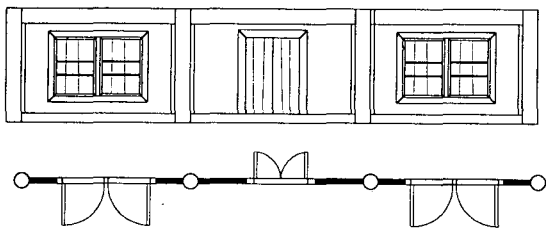

그림-1. 어간 門 + (협)퇴간 窓 형식
(봉정사 대웅전 : 94.8 필자실측,

한편 무위사 극락전(1430)은 정면 3간 측면 3간의 주심포 맞배지붕집으로, 기둥의 배흘림과 포작의 짜임 그리고 소슬합장 등이 결구된 上部架構의 모습으로 보아 古格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건물이라 생각된다. 무위사의 창호형식은 부석사 무량수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어간에는 불전으로의 출입을 위해 외여닫이 널문을 설치하였고, 兩퇴간에는 살창 대신 널棧雙窓을 둔테에 달아 밖으로 열리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무위사의 배면 창호형식도 어간의 문이 외여닫이란 점과 퇴간에는 살창이 아닌 영쌍창을 설치되었다는 점이 다를뿐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어간 門 + (협)퇴간 窓 형식으로 동일한 구성을 하고 있다.

한편 어간 門 + (협)퇴간 窓 형식으로 구성

3)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사, 1996, 387쪽 과 中央日報社, 韓國의 美 ⑬ - 寺院建築, 삼성인쇄,1990, 218쪽 그리고 金正基, 韓國木造建築, 一志社, 1982, 125쪽 참조

4) 주 1) 참조

된 20개소 사찰중 협간이나 퇴간의 窓을 이러한 櫺雙窓으로 설치한 예는 무려 14개소로 파악되었는데, 이들 중 정수사 법당, 화암사 극락전, 대곡사 대웅전, 각연사 비로전, 파계사 원통전 등은 窓의 일부분이나 전체를 벽으로 폐쇄하여 현재는 창틀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경우이다. 사용되던 창을 없애고 心壁으로 폐쇄한 것은 시일이 흐르면서 배면창의 기능이 쇠퇴된 이유도 있겠지만, 근래에 들어 불전의 도난을 막기위한 이유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5)]

(2) 어간 門 + (협)퇴간 門 형식

어간과 협·퇴간에 출입이 가능한 문을 설치한 경우로, 개암사 대웅보전을 비롯하여 모두 12개소의 사찰들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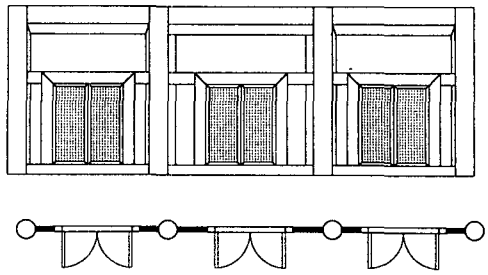

그림-2. 어간 門 + (협)퇴간 門 형식
(개암사 대웅전 : 95.8 필자실측)

들이 어간과 협·퇴간에 모두 兩開門을 달아 개암사와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표-2 어간 門 + (협)퇴간 門 형식 사찰 일람표

	寺刹名	건립연대	건물규모	어간 門 형태	협·퇴간 門 형태	비고
1	개암사 대웅보전	1640	3 * 3	兩開 井字살문	兩開 井字살문	
2	능가사 대웅전	1644	5 * 3	兩開 띠살문	兩開 띠살문	
3	홍국사 대웅전	1690	3 * 3	兩開 띠살문	외여닫이 띠살문	
4	대구 동화사 극락전	조선중기	5 * 3	兩開 띠살문	兩開 띠살문	
5	미황사 대웅전	1660	3 * 3	兩開 띠살문	兩開 띠살문	
6	양산 신흥사 대광전	1657	3 * 3	兩開 띠살문	兩開 띠살문	
7	화엄사 각황전	1703	7 * 5	兩開 띠살문	兩開 띠살문	
8	범어사 대웅전	17C	3 * 3	兩開 井字살문	兩開 井字살문	
9	거동사 대웅전	18C	3 * 3	4분합 띠살문	兩開 띠살문	어간 4분합문을 兩開門으로 변용
10	직지사 대웅전(復元前)	18C	5 * 3	3連獨門	兩開 띠살문(협간) 3분합여닫이(퇴간)	
11	마곡사 대광보전	1813	5 * 3	兩開 널문	兩開 널문	
12	은해사 대웅전	1847	3 * 3	외여닫이 井字살살문	외여닫이 井字살문 (右퇴간)	左퇴간은 벽체

이들 사찰중 개암사 대웅전(1640)은 정면 3간, 측면 3간의 다포계 팔작집으로, 배면의 全間에는 모두 형태가 같은 兩開 井字살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조사된 사찰중 홍국사, 거동사, 직지사, 은해사 등 4개소를 제외한 8개소의 사찰

은해사 대웅전은 어간과 우퇴간에만 외여닫이 살문을 달았고, 홍국사 대웅전은 양쪽 퇴간만을 외여닫이로 구성하였음이 다를뿐이다. 이와는 달리 거동사는 어간의 문을 여닫이門으로 하지 않고, 불전의 정면에서 주로 볼 수 있는 4분합문을 달았으며, 직지사의 배면어간에는 門骨 가운데에 2개의 설주를 세우고 그 사이에 각 각 독립된 문을 설치한 3連獨門이 설치되어 있어 특이하다. 그러나 거동사의 4분합문은 兩 기둥쪽의 문을 붙박이로하고 가운데

5) 金一鎭의 "韓國建築의 櫺雙窓에 관한 硏究" (東國大 博士學位 論文, 1988) 120쪽에는 화암사 극락전 배면의 창를 떼어버리고 벽으로 폐쇄한 것은 불상을 도난당한 후 도둑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 문만을 개폐토록하여 兩開門과 같은 형태로 變用하고 있다.

(3) 어간 門 + (협)퇴간 壁 형식

배면의 어간에만 출입을 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한 형식이다. 이 형식으로 창호를 구성한 불전은 봉정사 극락전을 비롯하여 조사대상 사찰중 가장 많은 36개소에 달한다.

이 중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하는 전통사찰 중 가장 건립시기가 빠른 건물로, 정면 3간 측면 3간의 주심포 맞배지붕집이다. 극락전의 배면에는 이 형식의 전형적인 창호가 설치되어 있다. 즉 어간에만 신방목이 달린 古式의 문틀을 세우고, 내부로 열리는 안여닫이 양개널문을 신방목과 상부의 둔테에다 달았는데, 이는 부석사 무량수전의 출입문과 거의 흡사한 형

표-3. 어간 門 + (협)퇴간 壁 형식 사찰 일람표

	寺刹名	건립연대	건물규모	어간 門 형태	비고
1	봉정사 극락전	12C중반	3 * 4	兩開 널문	
2	개심사 대웅전	1484	3 * 3	외여닫이 교살문	
3	파계사 원통전(復元前)	1605	3 * 3	외여닫이 띠살문	
4	관룡사 대웅전	1617	3 * 3	兩開 띠살문	
5	청곡사 대웅전	1612	3 * 3	兩開 띠살문	
6	법주사 원통전	1624	3 * 3	兩開 띠살문	
7	귀신사 대적광전	1629	5 * 3	兩開 교살문	
8	내소사 대웅보전	1633	3 * 3	兩開 띠살문	
9	금산사 미륵전	1635	5 * 4	4분합여닫이문	
10	속초 신흥사 극락전	1647	3 * 3	외여닫이 띠살문	
11	장안사 대웅전	1654	3 * 3	외여닫이 띠살문	
12	옥천사 대웅전(復元後)	1657	3 * 2	兩開 살문	
13	남해 용문사 대웅전	1666	3 * 3	외여닫이 井字살문	
14	대비사 대웅전(復元後)	1685	3 * 3	兩開 살문	
15	순천 동화사 대웅전(復元後)	1696	3 * 3	兩開 살문	
16	성주사 대웅전	1681	3 * 3	兩開 교살문	
17	각연사 대웅전	17C	3 * 3	兩開 널문	
18	무량사 극락전	17C	5 * 4	兩開 띠살문	
19	선운사 대웅전	17C	5 * 3	兩開 교살문	
20	숭림사 보광전	17C	3 * 2	3분합여닫이문	
21	구룡사 대웅전	1706	3 * 3	외여닫이 띠살문	
22	불영사 대웅전	1721	3 * 3	兩開 띠살문	
23	대구 동화사 대웅전	1727	3 * 3	3連獨門	
24	용연사 극락전	1728	3 * 3	兩開 띠살문	
25	운흥사 대웅전	1731	5 * 3	兩開 띠살문	
26	웅석사 대웅전	1736	3 * 2	외여닫이 띠살문	
27	논산 쌍계사 대웅전	1739	5 * 3	외여닫이 살문	
28	안정사 대웅전	1751	3 * 3	兩開 널문	
29	백련사 대웅전	1761	3 * 3	兩開 井字살문	
30	상주사 대웅전	1762	3 * 3	4분합 띠살문	兩開門으로 便用
31	천은사 극락보전	1774	3 * 3	兩開 교살문	
32	선암사 대웅전	1825	3 * 3	兩開 띠살문	
33	천황사 대웅전	조선후기	3 * 3	兩開 널문	
34	완주 송광사 대웅전	1857	5 * 3	兩開 井字살문	
35	백양사 대웅전	1917	5 * 3	兩開 띠살문	
36	대곡사 대웅전 (復元前)	1605	3 * 2	외여닫이 띠살문	

태이다.

壬辰倭亂前의 건물인 정면 3간 측면 3간의 개심사 대웅전(1484)은 上部架構가 주심포계의 법식과 기법을 따랐으면서도 공포는 다포계로 꾸민 절충형의 건물[6]이다. 이 건물의 배면창호도 봉정사 극락전과 같이 어간에만 문을 두고 양쪽의 퇴간은 心壁으로 폐쇄시킨 형식인데, 다만 봉정사 극락전과 다른점은 문의 형식이 외여닫이인 것이다.

이와같이 어간 門 + (협)퇴간 壁 형식의 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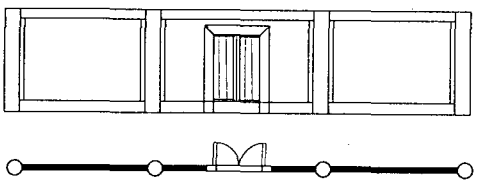

그림-3. 어간 門 + (협)퇴간 壁 형식
(봉정사 극락전 : 94.8 필자실측)

殿들은 대개 쌍 혹은 외여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금산사 미륵전, 숭림사 보광전, 상주사 대웅전 등은 분합 여닫이문이 달려있어 특이하다. 또한 대구 동화사 대웅전은 문틀의 가운데에 2개의 굵은 설주를 세우고 3개의 독립된 문을 달아 각 각 열리게 한 경우이다.

한편 파계사 원통전과 대곡사 대웅전은 현재 어간에만 외여닫이 세살문이 달려 있으나, 퇴간에 건립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문틀과 가운데설주의 흔적이 남아있어, 원래는 櫺雙窓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건립당시에는 어간 門 + (협)퇴간 窓 형식의 건물이었다. 그리고 옥천사와 대비사 대웅전, 순천 동화사 등은 건립당시에 있었던 문을 제거하고 지금은 門骨만 남아있다.

3-2. 어간 窓 형식

(1) 어간 窓 + (협)퇴간 窓 형식

어간과 협·퇴간에 문을 달지 않고 窓을 설치하여 빛과 공기를 받아들이게 한 형식이다. 이 형식으로 배면에 창을 낸 사찰은 수덕사 대웅전(1308)과 마곡사 대웅보전(1651) 그리고 금산사 대적광전(18C)[7] 등 3개소의 사찰이다.

이 중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시대 건물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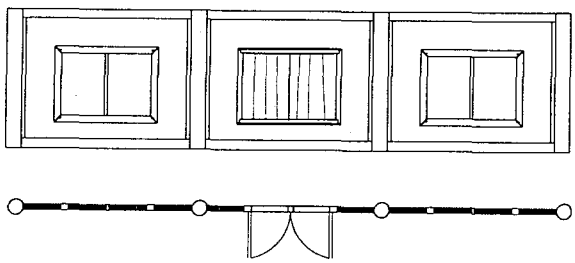

그림-4. 어간 窓 + (협)퇴간 窓 형식
(수덕사 대웅전 : 94.8 필자실측)

면 3간 측면 4간의 전형적인 주심포계 맞배지붕집이다. 배면어간에는 창틀의 외부 上,下部에 긴 둔테목을 고정하고 실내쪽에 띠장이 있는 널영쌍창을 달았으나, 兩협간에는 창을 없애고 심벽으로 폐쇄하여 창틀과 가운데설주만이 벽체 안팎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 창틀의 외부쪽 상·하부에도 둔테를 고정하였던 못자국이 남아있어 원래는 어간과 형태가 같은 널영쌍창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덕사 대웅전에 설치된 櫺雙窓은 문지방이 하인방에서 비교적 높게 설치되어 있어 출입은 불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마곡사 대웅보전의 경우도 배면에 창만을 설치한 형식이다. 이 건물은 정면 5간 측면 4

6) 韓國文化財保護協會, 文化財大觀 ③ - 寶物 I, 1992, 272쪽. 中央日報社, 韓國의 美 ⑬ - 寺院建築, 삼성인쇄, 1983, 227쪽

7) 금산사 대적광전은 1986년에 소실되어 최근 재건된 건물이지만 소실전의 사진과 도면을 참고로하여 18C 건물로 분석하였다.

간의 중층 팔작집의 비교적 규모가 큰 건물로, 배면 5간중 어간과 兩협간에 櫺雙窓을 설치하고 퇴간은 壁으로 폐쇄하였다. 어간과 양협간에 설치된 창틀은 양쪽기둥에 붙여서 문설주를 세우고 문지방과 웃인방은 하인방과 창방에 접하도록하여 비교적 크기를 크게 하였으며, 창틀의 중앙에는 가운데설주를 세웠다. 여기에 울거미널창을 돌쩌귀에 달아 밖으로 열리게 하였는데, 창문틀의 문지방이 하인방과 접해있어 수덕사와는 달리 필요에 따라서는 이곳으로 출입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면 7간 측면 3간인 금산사 대적광전은 어간과 次협간 등 3間에만 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창호틀는 하인방위에 통머름을 두어 문지방을 높게 구성하고, 웃인방은 창방에서 아래쪽으로 키를 낮추어 양쪽의 기둥에 결구한 다음, 여기에 밖여닫이 교살창을 돌쩌귀에 단 형식이다.

(2) 어간 窓 + (협)퇴간 壁 형식

배면의 어간에 窓을 설치하고 협간이나 퇴간은 벽체로 폐쇄한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의 건물은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1375)과 영은사 대웅전(1805) 2곳 뿐이다.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은 정면 7간 측면 3간의 주심포 맞배지붕집으로 架構의 법식과 기법 등이 古式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건물로, 배면에는 어간에만 살창이 설치되었으며, 나머지 柱間은 모두 회벽으로 폐쇄되었다. 배면어간의 살창은 정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크기만 조금 작을뿐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정면과 배면뿐만이 아니라 측면에서도 이러한 살창의 모습은 발견된다. 특히 양측면에 설치된 살창은 下部와 上部에 각 각 크기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해인사의 경판고에 配設되어 있는 살창과 그 모습이 흡사하다. 이러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의 정면과 배면 그리고 측면 창호의 모습은 이 건물이 원래는 板庫로 사용되었던 건물이 아닌가 추측케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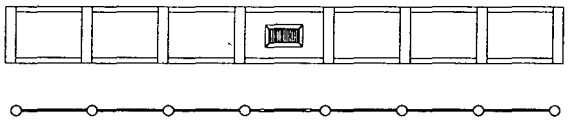

그림-5. 어간 窓 + (협)퇴간 壁 형식
(거조암 영산전 : 95.8 필자실측)

영은사 대웅전은 정면 3간 측면 3간의 건물로 배면의 어간에 중인방을 가로질러 하부는 판벽으로 마감시켰으나, 상부에는 붙박이 창을 설치하였다. 이 붙박이 창호는 크기가 너무 작을뿐 아니라 중인방 상부의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 단지 채광이나 환기의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3. 어간 壁 형식

(1) 어간 壁 + (협)퇴간 門 형식

어간에는 창호를 설치하지 않고 협간이나 퇴간에 문을 설치한 형식으로 7개의 사찰들이 조사되었다.

이 중 개목사 원통전(17C)은 정면 3간 측면 間半의 주심포 맞배지붕집으로, 前退에는 마루가 붙어 있어 불전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정면 3간 측면 1간의 규모에 불과하다. 불전의 규모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불단은 어간의 背壁쪽으로 바짝 붙여 앞쪽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려 하였고, 불단의 뒤쪽으로는 거의 여유공간이 없이 내부를 구성하였다.

창호는 정면과 배면에만 설치하고 양측면은 心壁으로 마감하여 폐쇄하였다. 全間에 창호를 설치하여 개방성을 띈 정면과는 달리 배면에

8) 中央日報社, 前揭書, 221쪽에서는 영산전 건립이후의 이름과 용도에 대한 개변가능성에 대하여 추론하고 있다.

는 左협간에만 외여닫이 井字살문을 내었는데, 窓이나 門을 설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표-4. 어간 壁 + (협)퇴간 門 형식 사찰 일람표

	寺刹名	건립연대	건물규모	협·퇴간 門 형태	비고
1	개목사 원통전	17C	3 * 1.5	외여닫이 井字살문(左퇴간)	右퇴간은 벽체
2	용문사 대장전	1670	3 * 2	외여닫이 띠살문	
3	안심사 비로전(復元後)	1613	3 * 2	외여닫이문	불단뒷벽 부착
4	은해사 백홍암 극락전	1643	3 * 3	兩開 띠살문	
5	율곡사 대웅전	17C	3 * 3	兩開 띠살문	
6	신원사 대웅전	1876	3 * 3	兩開 널문	불단뒷벽부착
7	불지사 대웅전	조선후기	3 * 2	외여닫이 널문	

간에다 문을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내부의 불단이 어간 背壁쪽으로 밀착되어 창호를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안심사의 비로전도 정면 3간 측면 2간의 비교적 소규모의 불전에 속한다. 이 건물의 배면에는 창호가 없이 全間을 심벽으로 마감하였으나 협간에 문틀로 사용되던 것으로 보이는 부재에 여닫이문을 달았던 돌쩌귀자국이 남아있어 원래는 양쪽 협간에만 출입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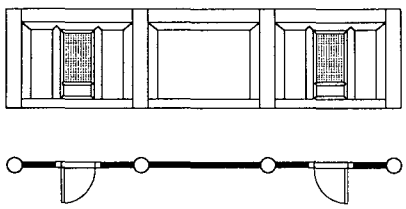

그림-6. 어간 壁 + (협)퇴간 門 형식
(용문사 대장전 : 95.12. 필자실측)

이 형식의 사찰 7개소중 측면의 간수가 3간인 사찰은 은해사 백홍암과 율곡사, 신원사 등이고 나머지 4개소는 2간 이하이다. 측면간수가 2간 이하인 이들 4개소의 사찰불전들은 개목사 원통전과 같이 불단 뒤쪽의 공간이 좁아

반면 신원사는 측면이 3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단을 뒷벽에 부착시켰기 때문에 이와 동일하게 창호를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어간 壁 + (협)퇴간 窓 형식

어간은 벽체로 폐쇄되었으나, 양협간에는 窓이 설치되어 있는 유형을 말한다. 대상사찰중 이 형식은 유일하게 안심사의 대웅전(복원전) 1개소만이 조사되었다.

안심사 대웅전(1626)은 현재 정면 3간 측면 2간의 다포맞배지붕집이나, 원래는 정면 3간 측면 3간의 다포계 팔작집이었던 것을 뒤쪽의 1간을 줄여 고치고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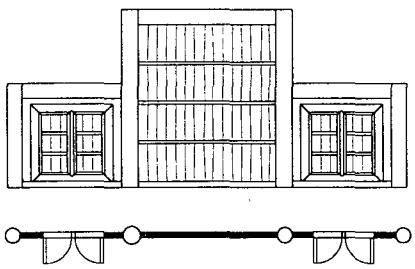

그림-7. 어간 壁 + (협)퇴간 窓 형식
(안심사 대웅전 : 95.12 필자실측)

뀌었음이 밝혀졌다.[9] 따라서 배면의 창호도 이

9) 申榮勳 編著, 國寶 ⑱ - 寺院建築 II, 藝耕産業社

때 변형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대웅전 배면의 어간은 高柱上部에까지 板壁을 올려막아 兩협간보다 훨씬 벽체를 높게 구성한 특이한 모습으로 마감되었으나, 兩협간에는 하인방과 창방사이에 안연귀로 창호틀을 짜맞춘 다음 가운데에 설주를 세우고 양개 널영쌍창을 시설하였다.

改變되기 이전의 배면의 창호형식이 어떠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협간의 欞雙窓만은 건립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간은 불전의 측면폭이 1간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불단이 뒷 背壁쪽으로 밀착되어 어간 벽 + (협)퇴간 문 형식과 마찬가지로 창호를 설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건립당시부터 어간을 벽으로 막고 협간이나 퇴간에만 창을 둔 형식의 불전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어간 壁 + (협)퇴간 壁 형식

불전배면에 창호를 설치하지 않고 全間을 벽으로 폐쇄한 이 형식의 사찰은 부석사 조사당을 비롯하여 총 22개소에 달한다.

그러나 불전건립후에 개변된 흔적이 남아있는 5개의 불전들은 대부분 원래 창호가 있었던 것을 후에 이를 없애고 벽으로 폐쇄한 경우여서, 건립당시부터 배면을 벽으로 막은 사찰은 모두 17개소이다.

이들 17개소의 불전들은 모두 정면이 3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측면은 3간 혹은 2간이하의 규모를 가진다. 측면간이 3간으로 구성된 사찰은 장육사를 비롯하여 모두 9개소(53%)이며, 2간이하인 건물은 8개소(47%)이다. 전술한 여러형식의 사찰들과 비교해 볼 때 배면에 창호를 설치하지 않은 이 형식의 불전들에서 측면이 2간이하인 사찰의 비율이 유독 높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단이 背壁에 붙어있는 경우도 많았으며, 불갑사 대웅전과 대전 고산사 대웅전의 경우에는 우측벽에 불단이 밀착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와같이 불단의 측면폭이 2간이하인 사찰들은 前形式중 어간 벽 + (협)퇴간 문 형식과 어간 벽 + (협)퇴간 창 형식에서 주로 볼 수 있었는데, 이 들의 공통점은 모두 배면의 어간이 벽체로 폐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

표-5. 어간 壁 + (협)퇴간 壁 형식 사찰 일람표

	寺刹名	건립연대	건물규모	비고		寺刹名	건립연대	건물규모	비고
1	부석사 조사당	1377	3 * 1	불단뒷벽부착	12	장육사 대웅전	조선중기	3 * 3	
2	화암사 극락전 (복원전)	1605	3 * 3		13	월리사 대웅전	조선중기	3 * 3	
3	안심사 비로전 (복원전)	1613	3 * 2	불단뒷벽부착	14	참당사 대웅전	1724	3 * 3	
4	불갑사 대웅전	1623	3 * 3	불단측벽부착	15	장곡사 상대웅전	1777	3 * 2	
5	강진 정수사 대웅전	1644	3 * 2	불단뒷벽부착	16	선국사 대웅전	1779	3 * 2	불단뒷벽부착
6	옥천사 대웅전 (복원전)	1657	3 * 2	불단뒷벽부착	17	불회사 대웅전	1798	3 * 3	
7	정혜사 대웅전	17C초	3 * 2		18	임실 신흥사 대웅전	18C	3 * 3	
8	장곡사 하대웅전	17C	3 * 2		19	전등사 약사전	18C	3 * 2	불단뒷벽부착
9	대비사 대웅전 (복원전)	1685	3 * 3		20	문수사 대웅전	1834	3 * 2	불단뒷벽부착
10	순천 동화사 대웅전(복원전)	1696	3 * 3		21	대전 고산사 대웅전	조선후기	3 * 3	불단측벽부착
11	진도 쌍계사 대웅전	1697	3 * 3		22	영국사 대웅전	조선후기	3 * 3	

1986, 225쪽

은 측면이 2간이하인 불전일 경우에 불단앞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불단을 背壁쪽으로 바짝 붙일 수밖에 없고, 불단 뒤의 여유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창호를 설치하지 않고 벽으로 閉鎖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 배면창호형식의 時代的 特性과 變遷體系 考察

이 章에서는 앞서 살펴본 창호형식들을 時期別로 나누어 변천양상을 탐색하기로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찰들의 건립연대가 거의 대부분 17세기以後의 것들이고 16세기以前에 건립된 사찰들은 12세기로 보는 봉정사와 13세기의 부석사 등 고려시대 5개소의 건물과 壬亂의 兵禍를 우연히 모면하고 남은 15세기 건물 3개소 등 모두 8개소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이들 8개소의 건물들을 대상으로 16세기 이전의 변천과정을 世紀別로 분석한다는 것은 사찰의 절대수가 부족하여 객관성과 보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16세기이전의 형식은 고려시대(제 1 기 형식)와 조선초기(제 2 기 형식)로 크게 분류하여 고찰하였으며, 17세기 이후는 17세기(제 3 기 형식)와 18세기이후(제 4기 형식)로 구분하여 배면창호의 변천과정을 탐색하였다.

4-1. 제 1 기 형식

제 1 기 형식은 고려시대에 건립된 불전들의 창호형식으로,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부석사 조사당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의 배면창호를 형식별로 다시 세분하여 살펴보면, ① 어간 門 + (협)퇴간 窓 형식(부석사 무량수전), ② 어간 門 + (협)퇴간 壁 형식(봉정사 극락전), ③ 어간 窓 + (협)퇴간 窓 형식(수덕사 대웅전), ④ 어간 窓 + (협)퇴간 壁 형식(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⑤ 어간 壁 + (협)퇴간 壁 형식(부석사 조사당)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상사찰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만을 분석하여 고려시대 사찰불전의 전체적인 배면창호형식에 대해 운위할 수는 없겠지만, 5개 사찰들이 각기 서로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고려시대 불전의 배면창호형식이 그만큼 다양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들 불전에 사용된 창과 문의 개별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제 1 기 형식에서 볼 수 있는 문(봉정사 극락전과 부석사 무량수전의 문)들은 모두 신방목이 달린 문틀에 설치되어 있으며, 문의 상부는 내부에 설치된 둔테에 달려있고 하부는 신방목위에 홈을 파서 끼워놓은 형태이다. 이러한 문의 형식는 조선시대에 건립된 건물들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古式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사찰들에서는 주로 살창(부석사 무량수전,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과 영쌍창(수덕사 대웅전)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수덕사 대웅전 뒷벽의 창은 영쌍창의 사용연대를 고려시대로 까지 올려다볼 수 있게 하는 유구로 麗末에는 살창과 영쌍창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서 고찰한 창호중 부석사 무량수전의 배면창호는 유일하게 어간의 兩開門과 협간의 살창으로 구성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봉정사 극락전을 비롯하여 고려시대 불전의 정면에서 이러한 형식을 몇 몇 찾아 볼 수는 있었으나, 무량수전의 배면에서도 어간 문 + (협)퇴간 살창 형식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당시에는 불전의 정면과 배면을 동일하게 문과 살창으로 조합구성하여 대칭적인 형태로 구성한 불전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2. 제 2 기 형식

제 2 기 형식은 조선시대 초기인 15세기에 건립된 건물들의 창호형식으로 대상불전들은 정수사 법당, 무위사 극락전, 개심사 대웅전이

이에 속한다. 이 시기에 건립된 불전이 이 들 3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시대적인 특성을 보편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정수사 법당과 무위사 극락전의 창호을 살펴봄으로써 조선시대초기 창호형식의 일면을 엿볼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정수사와 무위사의 창호형식은 어간 문 + (협)퇴간 창 형식으로서 부석사 무량수전의 형식과 그 구성면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부석사는 협간의 창을 살창으로 한 반면 정수사와 무위사는 영쌍창을 협간에 설치하였다. 영쌍창은 전술하였듯이 고려시대 건물인 수덕사에서 최초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조선초기에 들어서 어간 門 + (협)퇴간 窓 형식의 창호가 계속적으로 시설되어 왔지만, 협간에 영쌍창을 설치한 형식이 지속되었던 반면, 살창을 사용한 형식은 이 시기에 들어 사용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4-3. 제 3 기 형식

우리나라의 불교사원은 壬辰年의 兵禍로 말미암아 몇 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훼손되어 버렸고, 현존하는 사찰들의 대부분은 이 후 중건되거나 재건된 건물들이다. 조사대상 불전중 前節에서 논한 8개소를 제외한 나머지의 건립연대가 모두 17세기 이후인 것도 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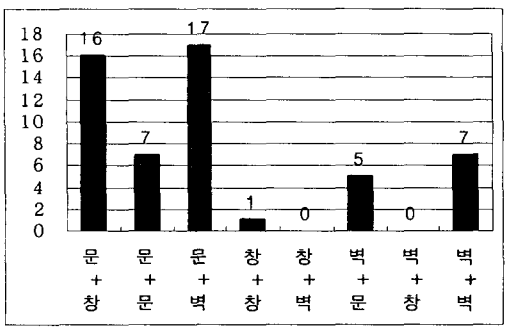

그림-8. 17세기 불전배면창호형식의 형식별 분류 (단위 : 개)

제 3 기 형식은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인 17세기에 건립된 사찰들의 배면에 설치된 창호형식이다.

조사된 사찰들중 17세기(조선중기에 건립된 사찰 포함)에 조성된 창호들은 모두 53개소[10] 인데, 이들을 다시 세부형식별로 분류하면 그림-8과 같다

위의 그림을 살펴보면, 배면의 어간에 문을 설치한 불전이(문+창, 문+문, 문+벽) 모두 40개소(75%)로 나타나 대부분의 불전에서는 어간에 문을 달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어간 문 + (협)퇴간 벽 형식이 17개소(32%)로 가장 많은 수를 보이고 있고, 어간 문 + (협)퇴간 창 형식도 16개소(30%)로 그에 버금가는 使用例를 보이고 있으나, 어간 문 + (협)퇴간 문 형식은 7개소(13%)로 상대적으로 사용빈도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배면어간을 벽으로 폐쇄한 13개소의 불전(벽+문, 벽+벽)중에는 前章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측면이 2간이하로 구성되어 내부불단을 背壁쪽으로 밀착시킬수밖에 없었던 사찰들(6개소)의 비율이 다른 형식에 비해 높았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배면어간에 門을 설치하고 양쪽의 협간은 벽으로 폐쇄하였거나, 창을 설치한 불전이 주류를 이루었고, 측면이 2간이하인 불전은 어간을 주로 벽으로 폐쇄시켜 둔 곳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사찰의 다양한 창호형식중 어간에 문을 두고 협·퇴간에 널창을 단 형식은 조선초기(정수사 법당과 무위사 극락전)를 거쳐 17세기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형식인데, 비록 어간과 양퇴간이 모두 널창(영쌍창)으로 구성된 수덕사의 경우를 포함하면, 퇴간에 널창을 설치한 예는 麗末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어간 문 + (협)퇴간 창형식의 16개 불전중 12개소의 불전背壁에는 欞雙窓이나 그 遺構가 남아있어 주목되며, 이들외에도 유일하게 창을 가진 어간 窓 + (협)퇴간 窓 형식의 마곡사 대웅보전에서도 영쌍창의 유구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17세기에 건립된 불전의 배면창에

10) 3장의 표에 例記된 17세기의 사찰중 복원가능한 건물은 복원한 자료로 분석하였다.

는 영쌍창의 사용이 보편적이었음을 추측케 한다.

이와같이 불전배면의 어간에 문을 설치하고 협간이나 퇴간에는 영쌍창을 사용한 형식은 부석사 무량수전과 같은 형식(어간에 문이 달리고 협간에 살창이 달린 형식)에서 변천되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즉 수덕사 대웅전의 배면에 영쌍창이 사용되고 난 후, 불전의 내부에 마루를 시설하는 것이 유행하던 고려 충렬왕(1274-1308)에서 조선시대 임진왜란전까지의 시기[11]에 내부공간의 防寒을 위해 협간을 살창으로 구성하던 형식은 사용치 않게되었고, 대신 영쌍창을 사용한 형식이 주로 쓰이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4-4. 제 4 기 형식

18세기以後에 건립된 불전의 배면창호형식이다.

분석된 사찰중 18세기(조선후기 포함)에 조성된 창호는 모두 32곳[12]으로 이를 다시 세부형식별로 분류하면 그림-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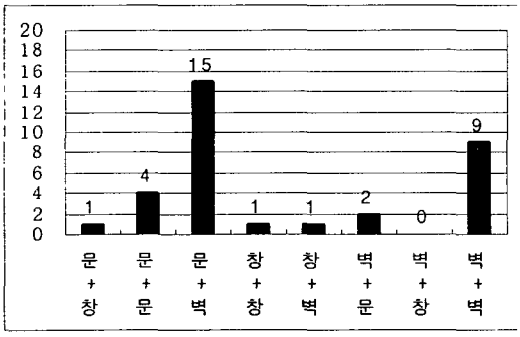

그림-9. 18세기이후 불전배면창호의 형식별 분류

(단위:개)

18세기 이후에 건립된 불전들은 어간 門 + (협)퇴간 壁 형식이 15개소(47%), 배면 전체를 벽으로 폐쇄한 형식이 9개소(28%)로 나타나 이 두가지 형식이 차지하는 비율(75%)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 외의 형식들은 이에비해 미미한 숫자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17세기의 어간 門 + (협)퇴간 窓 형식은 보경사 대웅전 한 곳만 파악되고 있어 18세기이후에 들어서는 거의 모습을 감추어 버린 17세기이전의 창호형식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8세기이후에는 배면개구부의 세부형식이 오히려 창 + 벽 형식 1개가 늘어 7개 형식을 보이지만, 문 + 창 이나 문 + 문 형식은 급격히 줄어들고 폐쇄도가 높은 문 + 벽, 벽 + 벽 형식이 前時期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한편 배면창호의 改變時期를 알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한 '復元前 形式'들은 대부분 건립당시에는 창호를 설치하였으나, 후에 이를 없애고 壁으로 막아버린 것들이다. 이러한 시대의 경과에 따른 폐쇄적인 개변추세는 18세기 이후에 배면창호의 폐쇄도가 높은 형식이 증가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시기가 내려올수록 사찰의 배면이 폐쇄적으로 바뀌어감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18세기에 들어 사찰의 배면벽이 폐쇄도가 높아지게 된 것은 전술한 바 있는 불전내부의 佛具 등 귀중품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조선시대에 들어 佛敎儀式의 변화도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조선시대의 불교의식은 주로 說法을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내부에 수용하기 위해 불단앞쪽에 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앙에 있던 불단이 점차 뒤로 물려졌고 後佛壁 뒷공간은 매우 좁아지게 되어 대부분 수장공간으로만 사용되거나,[13] 또는 側面間數가 적은 불전은 아예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11) 申榮勳, 韓屋과 그 歷史, 韓國建築史大系 1, 동이문화사, 1975, 168쪽

12) 3장의 표에 표기된 18세기이후의 사찰중 복원가능한 건물은 복원한 자료로 분석하였다.

13) 金奉烈, 朝鮮時代 寺刹建築의 殿閣構成과 配置形式 硏究, 서울大學敎 博士學位 論文, 111-112쪽 참조

5. 결론

現存하는 사찰중 고려시대에 건립된 불전의 背面間들은 門과 窓 그리고 壁體로 조합된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형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창호의 개별형태에는 모두 공통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이 시기에 사용된 배면의 널문은 모두 신방목을 설치한 문틀에 달려있으며, 창은 주로 살창이나 영쌍창형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부석사와 같이 협간을 살창으로 구성한 형식과 수덕사와 같은 영쌍창으로 마감한 형식이 함께 존재하였지만, 조선초기에 들면 협간에 살창을 설치한 형식은 보이지 않게 되고, 영쌍창을 단 형식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高麗末에서 朝鮮初期에 불전에 마루를 시설하면서 불전의 防寒을 위해 살창보다는 널창을 사용하게 된 때문으로 생각된다.

임진왜란직후 대대적인 사찰의 再建役이 시작되던 17세기에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초기까지 계속 사용되어 오던 어간 門 + (협)퇴간 壁 형식과 어간 門 + (협)퇴간 窓 형식의 數가 두드러지게 많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어간 門 + (협)퇴간 窓 형식은 협간의 窓이 몇몇 사찰을 제외하고는 거의 영쌍창으로 구성되어 있어, 17세기에 건립된 불전의 배면에 영쌍창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나 추측케 한다.

그러나 18세기에 들면 어간 門 + (협)퇴간 窓 형식은 거의 볼 수 없게된 반면, 비교적 폐쇄성이 강한 어간 門 + (협)퇴간 壁 형식과 어간 壁 + (협)퇴간 壁 형식등이 더욱 널리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오면서 불전의 背面壁이 점차 閉鎖度가 높아지게 된 것은 조선시대 佛敎儀式의 변화로 불단 뒷공간이 점차 좁아지게 되어 收藏空間化 되었고, 또한 불전내부의 佛具 등 귀중품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함께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1. 韓國文化材保護協會, 文化財大觀 ③-보물 Ⅰ,1992
2. 中央日報社, 韓國의 美 ⑬ - 寺院建築, 삼성인쇄, 1983
3. 申榮勳 編著, 國寶 - 寺院建築편, 藝耕産業社, 1986
4. 申榮勳, 韓屋과 그 歷史-韓國建築史大系 1, 동이문화사, 1975
5. 張慶浩, 韓國의 傳統建築, 文藝出版社, 1996
6. 金正基, 韓國木造建築, 一志社,1982
7. 張起仁, 韓國建築大系 Ⅰ- 窓戶, 普成閣, 1996
8. 張起仁, 韓國建築大系 Ⅳ - 韓國建築辭典, 普成閣, 1993
9. 金一鎭, 韓國建築의 櫺雙窓에 관한 硏究,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88
10. 郭東曄, 金一鎭, 韓國寺刹 佛殿의 正面 窓戶形式 變遷에 관한 硏究, 건축역사연구 제 11호, 1977

A Study on the Periodic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 of the Rear Windows and Doors of Main Halls in Korean Buddhist Temples

Kwak Dong-Yeob
(Professor, Daejin University)

Kim Il-Jin
(Professor, You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results of analyzing opening types in the rear elevations of ninety-six buddhist temples which would be existenc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Opening types in the rear elevations of buddhist temples in the Koryo Dynasty were various as the type of doors and windows, and the type of combining with walls. but the fact had something in common that whole door was the swinging pannel one, and the type of the whole window was the lattice and the mullioned casement one.

2) The type of the lattice windows were disappered and the only type of the mullioned casement windows were put in an apperance in the early period of Cho-sun Dynasty.

3) The type of doors + walls and the type of doors + windows in the rear elevations of buddhist temples of the seventeenth century were absolute. Especially the mullioned casement windows were used mainly in buddhist temple of the type of doors + windows.

4) The type of doors + windows in the rear elevations of buddhist temples of the eighteenth century did not be seen, but types of doors + walls and walls + walls which were much enclosed, were mainly put to use in those.